

Date: 16 Tammuz 5786 (July 1, 2026)

Torah Portion: Pinchas

Topic: 소박한 식사

민수기 28 장 27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 그리고 일 년 된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곧 번제를 드리라.“ 쉼미니 아제레트(שְׁמִינִי אֶזְרֶת Shemini Atzeret, 제 8 일 성회)에 올려 드리는 제물은 그 전날까지 7 일간의 '수코트(סוכות Sukkot, 초막절)' 기간에 드려진 풍성한 제물에 비하여 상당히 소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인들은 이러한 제물의 축소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 상황을 왕의 이야기로 비유합니다. 어느 왕이 성대한 7 일간의 잔치를 열어 온 나라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성대한 축제가 끝난 후, 왕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백성을 위한 의무를 다했네. 이제 나와 함께 한 날만 더 머물러 주게. 고기나 생선, 혹은 채소 약간이라도 좋으니, 그저 소박한 식사를 함께하며 깊은 교제를 즐겨보도록 합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쿨 7 일 동안 이스라엘은 만방 온 세상의 70 개 민족을 대신하여 코르반을 드렸습니다. 여덟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이신, 언약의 백성에게 "나와 함께 머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로 줄어든 것은 그날이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드러나는 성대함이나 과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쉐미니 아제레트, 제 8 일 성회'의 축하 행사는 의도적으로 소박하게 치러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이 특별한 8 일째 거룩한 성회의 날을 페싸흐(유월절)이나 칠칠절(샤브올)이 아닌, 굳이 성경력 7 월 15 일부터 21 일까지 모이는 7 일의 초막절(수쿨)과 연이어서 연결되게 하신 것일까요?

랍비 모세 파인스타인(Moshe Feinstein)은 그 해답이 창조의 구조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도 완전히 자급자족하며 독불장군처럼 존재할 수 없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물리적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농부, 장인, 상인, 노동자, 학자, 의사, 통치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연결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들도 무역과 협력, 자원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역사의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 창조주의 신성하신 설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어우르는 평화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을 넘어 인간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국가들이 조화롭게 정성적으로 공존할 때 상업은 번창하고 사회는 발전하며, 수많은 사람이 물자와 지식, 문화의 교류를 통해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나라간의 전쟁은 이러한 섬세한 관계의 그물을 찢어 놓으며, 전투에 참여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협력에 삶을 의지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막절 기간에 드려진 70 마리의 수소는, 세상의 70 개로 나누어진 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창 10 장 참조). [노아 70 후손; 이스라엘 숫자로 열방의 경계를 정하셨다]. 탈무드는 이 제사들이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 올려 드려졌다고 기록합니다. 만약 열방 민족이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제례식을 통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면,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탈무드).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만민의 제사장적 소명은 그들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을 위해 중재하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의 경험은 평화가 오직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부를 파괴하고 교역을 방해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초래하기에,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지성을 갖춘 정상들은 마땅히 분쟁을 피할 것입니다. 상인이 일시적인 이득보다는 오랜 고객을 귀히 여기며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듯이, 국가 또한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역사는 안타깝게도 상호 이익과 상충되는 여러 사건들을 전해줍니다. 야망, 교만, 질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추구가 거듭해서 이성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은 욕심으로 생기는 분쟁이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언젠가는 파멸시킬 것임을 예측하면서도 그 어두운 방향으로 계속 끌려가며 편파적인 이익을 추구하곤 합니다. 민족간의 전쟁이나 불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데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생애를 통해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더 5 장 13 절은 "에후다(유다) 사람 모드카이가 왕의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라는 하만의 심보를 기록했습니다. 하만은 엄청난 부와 영향력, 그리고 왕의 총애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자신 내면에서 느낀 모욕 감정 하나가 그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싶어했던 명예에 대한 갈망은, 그가 이미 누리던 모든 축복보다도 더 큰 욕구였던 것입니다. 기질안에서 그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영이, 감사나 지혜의 영보다 더 강력한 입지를 세운것입니다.

현인들은 거듭해서 교만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질투와 정욕, 그리고 명예욕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낸다"(피르케이 아보트 4:21). 마찬가지로, "누가 존경받는 자인가? 타인을 존경하는 자이다"(피르케이 아보트 4:1). 명예가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 평화는 필연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토라의 가르침은 성대한 '초막절'을 '쉐미니 아제렐(Shemini Atzeret, 제 8 일의 성회)'로 연 잇게 하며 잔잔하고 깊은 친밀한 예식의 정점으로 인도합니다. 온 열방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와 감사로 채워진 7 일의 초막절을 치른 후, 여호와께서는 잠잠하고 소박한 식사 자리로 거룩하신 당신이 신랑이 되시려고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그분의 빛의 근원, 영원히 하나되는 임재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속적인 평화는 정치적 조약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올바르게 정돈된 정결한 심장과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현세가 찰라이며, 일시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개인의 명성을 위해 공정한 의로움을 희생하거나, 개인의 야망을 위해 공동체를 통하여 얻었던 평화적 관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왕은 "한날 내쉬는 숨에 불과하고(헛되고), 한날 내쉬는 숨에 불과하니(헛되니) ... 모든 것이 한날 내쉬는 숨이로다"(전도서 1:2)라고 기록하며 위에 나눈 관점으로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로 이어지는 중간의 통로에 불과합니다(피르케이 아보트 4:16). 물질적 소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여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일시적인 선물입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권능이나 재능들이 우상이 될 때, 그 뒤에는 분쟁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결속력으로 주어지는 평화와 온전함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쉼메니 아제렐 (제 8 일 거룩한 모임)는 수쿨(초막절)의 영적 여정을 완성합니다. 여호와 존전에서, 온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서 봉사의 사역을 초막절 7 일 동안에 다 성대히 다 이룬 후,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보편적 평화의 기반이 여호와와의 개인적인 교제에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제물 수가 줄어든 것은 창조주와의 교제가 물리적 풍요로움이 아닌, 신실한 헌신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마이카(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미쉬파트*(정의를) 행하며 헤셀*(인자를) 사랑하며 짜아나*(검비)하게 네 엘로힘과 함께 할락*(걷는 것)이 아니냐" (미가 6:8).

갱신 언약(Renewed Covenant) 또한 이 동일한 원리를 강조합니다. 예호슈아 하마시아흐(Yehoshua HaMoshiach)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9). 참된 샬롬(평화)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과 화목해진 마음에서 맺어지는 결과적인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네짜림 도의 추종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고 권면하며, 그러한 평화가 세상적인 야망이 아닌 여호와 엘로힘의 뜻에 따라 변화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쉼메니 에제렐(제 8 일 성회)은 참되고 온전한 평화는, 여호와께 "코르반, 곧 온 정성으로 다가가는 헌신적 예식, 곧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줍니다. 초막절의 70 가지 제물은 모든 열방의 민족을 향한 여호와와의 긍휼을 보여주는 반면, 여덟째 날의 단 "하나의 코르반, 제물"은 언약으로 맺은 가벼운 멍애를 진 백성, 이스라엘과의 친밀한 결혼, 하나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분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창조주와 겸비히 계명을 지키는 "חֻקָּה" (할라카; 옛 길 선한 도) 로 동행하는 소박한 기쁨에 만족하는 법을 깨 달아 배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참 되고, 신실한 평화의 거룩한 도구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들의 안전은 소유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그 변함없으신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 있으며, 이 관계는 모든 사람 사이의 공정한 의와 겸비함, 그리고 참된 평화의 영으로 가득히 채우며, 주변 환경으로 넘쳐흐르게 됩니다.

샬롬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밀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방들 기업을 주실 때에, [곧] 인류를 분리하여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32:7-8

*임마누엘 (אֱמָנוּאֵל)- 엘(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다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שׁוֹשׁוּן 이쉬)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주(בָּאֵל)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 2:16).

[토라에 기록 된, 모든 적용되는 계명을 믿음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12 지파 모두를 향해서,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아시는 그 한 날에 있어서, 더이상은 통치 지배력으로 연결 된 주종 관계(바알)가 아닌,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남편)로 회복하시는 여호와께서 알려 주신 인류 창조의 의도, 최상의 은혜와 사랑!]